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1. 구자봉(장립집사), 김선경집사님 가정이 독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영국에서 학업을 시작한 아들 구동혁과 두 분의 새로운 정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주(10/17)부터 주일학교와 청소년예배가 대면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섬기시는 교역자와 모든 선생님들이 성령충만, 기쁨충만하게 섬기시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 새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4. BTS 2학기가 10월 24일(주일) 오후 5시에 ZOOM으로 시작됩니다.
5. 전교인 성경퀴즈 대회(로마서-갈라디아서)가 11월 28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정확한 진행 계획과 시간은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 하반기 성경필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필사를 다 하신 분은 11월말 까지 장년교육부 유정훈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 Schnell Test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검사 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섬김이		예배 및 봉사 구역		교회 후원 선교지
담당목사	시무장로	날 짜	기 도	
한성호	소병찬	10.17	안미영	• 키르키스탄(다니엘 P)
교육전도사	이정수	10.24	정복순	• 코소보(S00)
장재성	이태성	10.31	홍근희	• 독일 쾰른(N00)
		11.07	서문희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디모데전서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1.Timotheus 4:4 Denn alles, was Gott geschaffen hat, ist gut, und nichts ist verwerflich, was mit Danksagung empfangen wird;

2021년 표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Freue dich über den HERRN, und er wird dir geben,
was du dir von Herzen wünschst (Psalm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마인츠 중앙교회
원로목사 박익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 06131 380 9981

제36권 42호 2021년 10월 17일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예배 1부 오전 12:30 인도자 :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89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21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안미영 권사
봉 헌	Kollekte	314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고린도후서 2:14-17	인도자
찬 양	Lobpreis	평화의 기도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마라나타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수요기도회 수요일 20:00 본당 예배 한성호 목사

예배안내	주일예배	주일 12:30	본당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주일 12:30	별관
	수요기도회	수요 20:00	본당	청소년부예배	유년 / 초등	주일 12:30	별관
				청년부예배		주일 12:30	별관
						금요 12:00	본당

가을 성경학교 소식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인츠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주일학교에서 문안드립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가을 성경학교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과 증인의 삶에 대해 배워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8일과 9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10일에는 긴 기다림 끝에 아이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함께 하는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형제/자매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연습하고 교회의 하나 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들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어 사랑으로 섬겨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며 격려로 힘을 주신 부모님들도 감사합니다. 사랑과 선물로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원로회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감과 사랑을 받아준 아이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더 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 주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사즉생 생즉사 ::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I am ready to face death and I am not afraid.

- 주기철

- Chu Ki-Chol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험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를 위해 각오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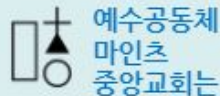
우리도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 ❖ 교회와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며 성령충만, 말씀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 ❖ 주일학교 가을성경학교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자녀들이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 ❖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자들이나 새로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교회에 정착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 ❖ 하반기 교회 일정(청년부 수련회, 청소년 거리 탐방 및 전도, BTS 2학기, 구역모임 등)을 통해 영적 성장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 ❖ 청소년부와 청년부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 ❖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나승필, 박다니엘, 백경진, 서원민, 이만민, 이재은, 이정호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사역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옵소서.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출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의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출만한 예수공동체가 될시다.

Die Mainz Chung-Ang Gemeinde, als Leib Christi, ist erfüllt von der Gnade des Herrn und eine Glaubensgemeinschaft, die Freude teilt. Sie ist eine Gemeinschaft aus Menschen, die den Wunsch haben, Gott allein zu verherrlichen. Wir laden Euch ein, Euch an diesem gesegneten Ort an der Gnade des Herrn zu erfreuen und einen wahrhaftigen Gottesdienst zu feiern.